

DJ서거 1주기 야권 '새판짜기' 부심

“뭉쳐야 산다” 민주 대연합론 점화

오는 18일로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1주기를 맞는 가운데 야권이 '새판짜기'를 위해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 정동영 후보의 대선 패배로 10년 만에 진보·개혁 정권을 내준데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은 DJ 서거로 구심점을 잃은 야권이 2012년 새로운 도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우선, DJ가 유훈으로 남긴 '민주대연합론'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전개되

“MB정부 민주주의 후퇴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정동영-손학규-정세균 등 'DJ정신 계승' 발빠른 행보

고 있다.

민주당을 제외한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시민사회 등 진보진영에서는 1단계 통합을 시도하기 위해 부단히 움직이고 있다. 이 움직임의 중심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나중 민주당과 전략적 제휴나 선거연합 형식의 연대를 시도한다는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손학규 전 대표가 야권 연대에 가장 앞서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무산됐던 경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앞둔 17일 오후 광주 동구 YMCA 무진관에 설치된 추모분향소에 광주지역 사회단체와 기관장, 시민들의 분향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기도지사 야권 후보단일화를 극적으로 성공시켜 강원·충남·경남지역에서 야권단일화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중에서는 다른 야당 및 진보 진영으로부터 가장 먼저 신뢰를 쌓은 것이다.

손 전 대표는 또 15일 정계복귀의 일성으로 “민주당은 민주진보세력의 대통합의 선두에 서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세력이 대통합되는 마당이 돼야 한다. 민주당은 이 땅의 민주세력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커다란

포부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도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야권대통합을 모색하는 '2012 정권교체, 연합정치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갖는다.

민주진보진영이 이처럼 야권 연대에 매달리는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 후퇴와 민생 파탄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 여기에 야권연대를 통해 6·2 지방선거 승리를 이룩했다는 경험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야권 진영의 망령을 자임한 민주당 내에서는 '빅3' 등 차기 주자들간에 '포스트 DJ'를 둘러싼 후계경쟁도 가속화되고 있다. 정세균, 손학규 전 대표와 정동영 상임고문은 지난해 조문정국 당시 동고동계와 함께 '상주' 역할을 했다. 이들은 이후에도 'DJ 정신' 계승을 외치고 있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6·15 정신을 기치로, 손학규 전 대표는 DJ가 생전 강조했던 실사구시를 접목, '국민생활 중심정치'를 비전으로 내세우며 DJ 후계자를 자처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공장 생산 기아차 '쏘울' 결함 민원 1건에 美 당국 조사...과잉대응 논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한 '쏘울'이 조향장치 결함으로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민원 1건만으로 그동안 판매된 5만여대를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 오는 9월말로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논의를 앞두고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키운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됐다.

17일 기아차에 따르면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2010년식 크로스오버유틸리티 차량(CUV) '쏘울'이 최근 조향 축과 휠이 분리를 제조능력까지 방해했다는 미국 소비자 민원 1건이 접수돼 NHTSA가 조사에 나섰다.

NHTSA 관계자는 “조향 통제력 상실이 주행거리가 얼마 되지않은 신형 차량에서 경고 없이 발생했고, 브레이크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 차량 소유자는 2개월 동안 6900km를 운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NHTSA가 소비자 불만 1건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과잉대응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NHTSA가 예비조사대상에 올해 1월부터 미국 시장에서 판매된 쏘울 5만여

대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다음달 예정된 한미 FTA 재협상에서 자동차분야가 핵심의제로 부상할 것을 대비해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키운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조향장치 결함에 대해 기아차는 ‘작업 불량’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향장치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아닌 작업자의 실수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내수용 쏘울은 조향장치기 전자식이지만 미국 수출용은 유압식이기 때문에 단순 조립 문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미국 현지에서 긴급 표본조사를 실시했으나 유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전량 생산되는 쏘울은 지난 7월 미국 시장에서 8020대가 판매돼 박스형 소형차 부문에서 6개월 연속 판매 1위를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쏘울은 올해 초 월드카오브더이어 조

작위원회가 선정하는 ‘올해의 차’와 ‘올해의 카디자인’ 부문에서 최종 후보에 올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공기업 임원 청문회 난관봉착

시의회 조례제정 범규미비 철회... 대안 마련키로

광주시의회가 도입하려고 했던 광주 시 산하 공기업 임원 인사청문회가 난관에 봉착했다.

인사청문회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에 따른 것으로, 광주시의회는 관련 법 개정 및 공기업 임원 상임위 출석 요구 등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최근 광주 시 산하 공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했으나 범규 미비로 이를 철회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이 없어 지자체 조례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경우 상위법에 위배한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

회는 조례 제정 대신 지방 공기업 대표 인사 청문회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은 오는 19일 충남 천안에서 열리는 전국 16개 시도 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지방 공기업 대표 인사 청문회를 도입할 수 있도록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에 앞서 신임 지방 공기업 대표를 검증할 수 있는 별도의 대안을 마련중이다. 소관 상임위원 행정자치위원회가 신임 공기업 대표를 출석시켜 인사청문회 성격의 검증에 나설 경우 무분별한 인사를 막을 수 있다는 복안이다.

최권열기자 cki@kwangju.co.kr

부활하는 DJ 사람들

18일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아 가신그림인 동고동계 인사들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전 대통령(DJ)과 영육을 함께했던 동고동계 인사들은 상당수가 정치 일선에서 후퇴하는 듯했던 모습을 보여왔지만 DJ 서거 후 권고직 전 고문을 좌장 격으로 매주 화요일 현충원을 참배하며 결속을 도모해왔다.

특히 권 전 고문 등은 10월 민주당 전당대

회를 앞두고 'DJ 적자' 경쟁에 뛰어든 당권 주자들로부터 경쟁적인 구애의 손길을 받고 있어 상한가를 구가하고 있다.

일부 인사들은 정세균, 손학규 전 대표와 정동영 상임고문 등 이른바 '빅3' 캠프의 중책을 맡는 등 견제를 과시하고 있다. 동고동계 조직의 귀재 박양수 전 의원이 손 전 대표, '동고동 특무상사'로 불렸던 이훈평 전 의원이 정 전 대표, 김태량 전 의원이 정 고문의 캠프에서 조직력을 각각 맡고 있다.

동고동계는 이날 말뚝 전체 회동을 갖고 특정 후보 지지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각 캠프에선 비상이 걸렸다. 일각에서는 권 전 고문 등은 이미 한 당권주자에 힘을 실어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날 논의의 결과가 주목된다.

실제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동고동계 인사도 있다. 동고동계 막내인 40대의 장성민 전 의원이 주인공. 그는 40대 기수론을 내걸고 DJ 지지층의 복원을 기대하고 있다.

'DJ의 복심'인 민주당 박지연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까지 겸임하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특유의 노련미와 정치력, 성실성을 바탕으로 한 순간에 야권의 거물급 정치인으로 도약했다는 평이다. 일각에서는 '큰 꿈을 꾸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올 정도지만 '김 메이커' 역할을 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권노갑 전고문 좌장 동계동계 결속 도모
민주 전대 앞두고 당권주자들 구애 '손짓'

표조이 여행사

여행 전문 여행사

010-9931-7777

임금인유 주석 유승진광 신고 모임

일석 유승진 주석 (부부총합세 100%)

유승진 주석의 유산 상속세 100% 부담

유승진 주석의 유산 상속세 100% 부담

신속 민원 서비스

- 민원 신청 접수
- 민원 진행 상황 확인
- 민원 완료 통보

민원 서비스

민원 신청 접수

민원 진행 상황 확인

민원 완료 통보

민원 서비스

민원 신청 접수

민원 진행 상황 확인

민원 완료 통보

민원 서비스

민원 신청 접수

민원 진행 상황 확인

민원 완료 통보